

## 누에바 에스파냐의 사회정치적 단위로서의 원주민공동체\*

박수경\*\*

단독/고려대학교

**Park, Soo-Kyoung (2014) "The Republic of Indians as Unit Socio-Politic in the New Spain"**

### ABSTRACT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Republic of Indians can be taken as a socio-political unit for analysis of the colonial regime of New Spain. After the military victory in Tenochtitlan, the *encomienda* and the municipality were implanted in New Spain as the first colonial systems. However, the power struggles carried out between the conquistadors, the Spanish Crown, the royal authorities, the settlers, and the clergy resulted in the modification of the colonial system. The Republic of Indians appeared as the legal status that the Crown introduced to regain jurisdiction over the colony and to restrain the power of the conquistadors. However, it allowed the Republic of Indians to have indigenous autonomy in politics and economy.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two meanings of the Republic of Indians. First, it allows us to reflect on the indigenous peoples as political subjects under the colonial system, and to distinguish differences between the indigenous peoples although the Spaniards categorized all under the label of "indio." Second, the Republic of Indians provides a bridge between prehispanic and modern societies so that we may study the history of indigenous peoples over time.

**Key Words:** Republic of Indians, *encomienda*, *corregimiento*, *congregaciones*, Indian *cabildo*

---

\* 본 논문은 본인의 박사학위논문 제 2장 원주민공동체의 자치권 행사방식 연구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며, 동일한 문헌을 참고자료로 삼고 있다.

\*\* Soo-Kyoung Park is professor of spanish at Korea University, Korea (Email: gmfma99@naver.com).

## 서론

라틴아메리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 연구 분과, 연구방법론, 연구주제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원주민’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라틴아메리카’라는 하나의 세계가 구성됨에 있어서 원주민은 그 세계의 출발이자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세기 후반부터 더욱 두드러지게 가시화된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운동과 함께, ‘원주민 소수민족’(pueblos indígenas)이라는 집단 정체성이 표출되면서 ‘원주민’은 주요 사회정치적 주제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원주민’은 다양한 관점과 영역의 연구대상이 되었고, 라틴아메리카의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축이 되어왔다.

원주민을 주제로 삼는 연구 가운데 일부는 사회운동의 행위자 또는 정책적 수혜대상으로서 원주민에 초점을 맞추어(Joo 2005; Kim 2005; Kim 2013a), 원주민 집단과 비원주민 집단의 구별을 전제한 채 논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원주민 집단을 규정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경우 원주민은 하나의 범주이자 사회적 구성물로서 다루어지며(Choi 2009), 원주민의 역사가 아닌 원주민이라는 범주에 내포되어 있는 역사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페인어의 인디오(indio) 또는 인디헤나(indígena)는 한국어로 ‘원주민’ 또는 ‘토착민’으로 옮기거나 원음을 그대로 차용하지만, 시공간적 차이에 따라 담기는 뜻도 달라진다.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용어를 사용할 경우 원주민이라는 개념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존재하는 ‘원형’의 사회집단으로 화석화되거나, 그러한 역사성 자체를 제거당한 ‘고정불변의 실체’로 협소화되거나, 전체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는 사회구성물이 아닌 사회의 다른 부분과 동떨어진 채 존재하는 ‘소수집단’으로 폄하된다. 다시 말해, 원주민을 현대에 사용되는 용법인 ‘집단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그러한 현대적 의미로 해석되기까지의 사회적 의미화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주민 관련 연구에서는 원주민 집단이 끊임없이 재정의 되어 왔다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재정의 과정은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의 변화에 반영되어 있다. 한 집단을 정의하는 것은 곧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어떤 요소를 가시화하는지, 다른 집단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주민 범주의 재정의는 어느 상대와 어떤 관계 속에 위치하느냐와 연관된다.

기원전부터 16세기 초반까지 메소아메리카 문화권에는 오늘날 우리가 올메카, 테오티우아칸, 아스테카, 마야, 사포테카, 믹스테카 등의 이름으로 부르는 다양한 종족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상호관계를 맺으며, 그러나 독자적으로 발달해왔다(Carmack 2014, 80-263). 그러나 스페인인의 도착과 함께 메소아메리카라는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던 다양한 종족 집단은 그들 간의 개별적 차이는 무시당한 채, 인디오(indio)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며 종족적 다양성 대신 인종적으로 백인과 구분되는 집단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국민국가의 동일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디오라 불리던 집단은 법적 제도적으로 시민으로 통합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인종적 구분은 유지되었으며, 사회적 통합의 대상으로 인디헤나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 때 원주민은 시민이지만 미숙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예외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재정의 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 이들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한 채 농민 계급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부터 원주민 운동 흐름이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형성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호명 대신 ‘원주민’으로 자기명명한 사회적 주체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의됨/함’의 과정은 우리가 흔히 원주민이라 일컫는 사회정치적 행위주체가 지니는 역사성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 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기되는 ‘원주민’ 범주와 관련된 정치적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범주를 역사적 맥락 안에 둘 필요가 있다. 국내 원주민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다수 발표되었으며, 연구시기도 식민시대부터 현대 원주민 운동까지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식민시대까지 연구의 범위가 최근 확장되면서(Kim 2014; Kim 2013b), 원주민 관련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식민시대 정치사회구조에 관한 연구는 모든 연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정복이라는 역사적 인식론적 사건, 역사학에서 강조되는 독립과 혁명, 정치학 및 사회학에서 부각되는 현대 정치경제사 및 사회운동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논문에서 식민시대는 연구대상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다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식민시대 ‘원주민공동체’(República de indios)의 형성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는 단순히 식민시대연구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아니라, 식민시대에 형성된 ‘원주민공동체’를 원주민 관련 연구의 분석단위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제안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디오’라는 스페인인의 호명은 정복 이전부터 존재하여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원주민들 간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호명을 따라 식민시대 연구를 원주민 대 스페인인의 구도에서 전개할 경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좀 더 정교하고 구체화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덧붙여, 위와 같은 구도로 식민시대에 접근할 때 원주민은 정복당하고, 착취당하고, 지배당하는 수동적 집단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관계 속에서 해석된다. 말하자면 그 관계가 지배/피지배 관계라 할지라도 행위는 상호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300년간의 식민지 시대 동안 피식민층이었던 원주민도 스페인 식민정부와 상호작용하는 행위자였다.

원주민이라는 범주를 비스페인인 집단을 지칭하는 인종적 분류단위로 이해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사회정치적 단위와 연결 지을 때, 행위자로서 원주민 집단을 조망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덧붙여, 원주민이라는 분석단위를 원주민공동체로 조정할 경우, 개별 원주민공동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스페인인에 의해 비가시화된 원주민들 간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원주민공동체라는 분석단위는 스페인 정복 이전부터 독립 이후까지 장기적 역사 흐름을 매개하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이로써 정복과 독립이라는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사건을 이정표로 삼는 원주민 사회의 연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식민시대 원주민공동체는 스페인 정복 이전에 존재했던 메소아메리카 문화권의 사회정치적 단위인 알테페틀(*altépetl*)을 계승하며,<sup>1</sup> 독립 이후 근대국가의 정치행정 자치단위인 무니시피오(*municipio*)로 계승되어 원주민 인구 밀집지역에서 원주민 운동을 가능케 했던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은 분석단위로서 원주민공동체를 소개하는 것으로 제한하며,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의미는 후속연구를 위해 남겨두려 한다.

1 알테페틀에 관해서는 김윤경(2013b)을 참고할 것.

여기서는 누에바 에스파냐를 연구범위로 두며, 원주민공동체의 등장과 그 의미를 논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sup>2</sup>

## 식민시대 ‘원주민공동체’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 ‘원주민공동체’라 옮긴 레푸블리카 데 인디오스(República de indios) 또는 ‘푸에블로 데 인디오스’(Pueblo de indios)<sup>3</sup>는 국내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진 적은 없다<sup>4</sup>. 일부에서는 레푸블리카(república)를 사전적 의미 그대로 옮겨, ‘원주민공화국’이라 지칭하였고(Joo 2005, 244), ‘원주민 국가’ ‘원주민 도시’ ‘원주민 정착촌’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Kim 2014; Moon 2004)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원주민공동체는 1549년 스페인 왕실에서 식민체제를 구성하는 원주민의 사회 정치 행정적 단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사용한 법적 개념이다.

이 용어를 둘러싼 혼란은 한국어와 스페인어 두 가지 모두에서 발견된다. 우선 스페인어에서 ‘원주민 마을’(comunidades indígenas) 또는 ‘원주민 소수민족’(pueblos indígenas)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원주민공동체(República de indios 또는 pueblos de indios)와는 다르다<sup>5</sup>. 후자의 두 가지 표현은 본 논문의 연구대상

- 
- 2 현재 멕시코 영토인 차아파스 주와 유카탄 반도는 마야문화권이 발달했던 곳으로 16세기 중반 과테말라 아우디엔시아 관할 아래 있었다. 따라서 원주민공동체의 설치과정은 멕시코 중앙부를 중심으로 하는 누에바 에스파냐와 다소 차이를 보이며, 누에바 에스파냐 관할권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원주민공동체 설치시기와 방식, 구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 앞서 본 논문은 개괄적인 수준에서 원주민공동체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 3 두 용어 모두 식민시대에 사용되었으며, 레푸블리카 데 인디오스는 푸에블로 데 인디오스에 해당하는 법률적 개념으로, 엄격히 말하면, 원주민공동체의 통치기구인 카빌도를 지시한다.
  - 4 김윤경의 연구(2013b)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식민지시대 원주민공동체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본고를 통하여 기대하는 두 번째 목표인 정복 전후 원주민 사회의 연속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공동체 자체를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 5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현대적 용법으로 사용하는 원주민 마을 또는 원주민 소수민족을 식민시대 용어인 원주민공동체와 구분하는데 주안점을 두지만, 실제 네 가지 스페인어 용어는 의미상의 차이를 지닌다. 특히 원주민 마을과 원주민 소수민족은 원주민 자치운동의 성장과 함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차이를 지니게 되었다. 현재 멕시코 헌법에서는 후자가 가지는 자기결정권의 구체적인 적용단위로 전자를 거론함으

으로 식민지 시대 법령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특정한 형태의 원주민 거주지와 그 거주지의 정치체를 의미하는 반면, 전자의 두 가지 표현은 19세기 초 독립 이후 주민을 인종적으로 구분하는 카테고리를 폐지한 후 원주민의 문화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대체용어로 도입되었다. 앞서 언급한 ‘인디오’에서 ‘인디헤나’로의 용어전환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한국어로 위 네 가지 용어를 옮겼을 때, 용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용법의 시간적 차이를 드러내기가 어렵고, 각 용어를 구분하여 번역하고자 했을 때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위 네 가지 용어를 모두 ‘원주민 공동체’라 옮길 때, 원주민 공동체는 마치 시간적 흐름에서 벗어나 고정화된 예스러운 실체인 양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인디오’와 ‘인디헤나’의 구분인 ‘원주민’이라는 번역어에는 담기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원주민 공화국’ 또는 ‘원주민 국가’라 옮기는 경우, 한자어 ‘국(國)’에서 풍기는倪昂스로 인하여, 그것이 식민체제를 구성하는 일부구조라는 점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거나, 마치 은유적 표현으로까지 느껴질 만큼 원주민의 독립성을 의도치 않게 강조하게 된다.

번역에서 기인하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레푸블리카 데 인디오스’ 또는 ‘푸에블로스 데 인디오스’를 ‘원주민공동체’라 옮기고자 하는데, 정치적으로 ‘스페인인공동체’와 함께 식민체제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표현하기가 쉬우며, 원주민 정착촌, 원주민 도시, 원주민 국가와 같은 용어와 달리, 단순히 물리적으로 밀집된 거주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 구성 상 정치 공동체의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원주민공동체’라는 표현은 현대적 용법과 혼란을 일으키며 마치 수 백 년에 걸쳐 변화 없이 유지된 박제된 실체처럼 여겨지기 쉽다. 다만, 이러한 한계는 번역어의 선택이 아닌 해당주체에 대한

---

로써 전자가 공권을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로서 원주민의 자기결정권은 마을 단위의 행정적 자치로 제약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6 여기서는 원주민과 스페인인의 제도적 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두 경우 모두 ‘공동체’라 옮기지만, 스페인어의 경우 스페인인 공동체는 pueblo 대신 lugar, villa, ciudad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원주민공동체와 차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pueblo가 반드시 원주민 공동체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닌데, Jiménez Gómez(2008, 33)는 Recopilación de Indias 제 5권 제 3장 제 1항이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para el buen regimiento, gobierno y administración de justicia de las ciudades y pueblos de españoles [...]”.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보충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식민시대 원주민공동체는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에서 원주민을 정치, 종교, 경제, 사법 등의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간접 통치 장치로 도입되었으나, 공동체 자체적인 정부를 선출하여 정치 및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정도의 원주민 자치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스페인인의 통제가 이르지 못하는 지역에서 원주민 자치 수준은 식민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였다.

원주민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스페인 왕실에서 법적으로 규정하여 설치한 행정기구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 설치 취지와 달리 스페인인 사회와 원주민 사회는 점차 혼합되었으나, 식민사회를 원칙적으로 규정하는 사회구성물 가운데 하나였다. 더구나, 원주민공동체의 등장과 성립 과정은 식민체제를 이루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 원주민공동체의 등장배경

1549년 스페인 왕실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한 원주민공동체의 성립은 서인도 제도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루어진 군사적 정복 이후, 스페인 왕실이 아메리카에서 세력을 강화시키고 있던 정복자 세력을 견제하고 식민지에 대한 왕실의 사법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는 곧 군사적 충돌 이후 뒤엉켜 있던 정복자, 정복자의 후손, 스페인 왕실, 왕실에서 파견한 관리, 사제, 원주민 지배층 등 다양한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긴장관계를 어느 정도 왕실 중심의 위계구조 또는 협력관계로 재편하며, 식민체제가 안정기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스페인 식민체제는 원주민 노동력 착취, 공물 징수, 자연자원의 수탈, 스페인인에게 토지재분배라는 ‘원주민사회 약탈’과 종교 및 행정분야에서 진행된 스페인화, 즉 가톨릭 선교와 스페인식 통치제도의 이식이라는 ‘원주민사회 관리’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민체제는 테노치티틀란의 정복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조정된 결과였다. 따라서 식민시대 누에바 에스파냐의 원주민공동체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테노치티틀란 정복 이후 코르테스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에 이식된 엔코미엔다와 무니시피오 제도를 비롯한 식민시대 초기 50년에 걸친 식민체제 이식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스페인 제도는 본래 원주민 사회의 정치적 구성을 말살한 후 이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주민 사회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식에 성공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16세기 중반 이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식민체제는 스페인 사회와 원주민 사회가 적절히 흡수된 결과였다. 원주민공동체의 등장은 스페인인과 원주민의 생물학적, 물리적 분리라는 목적과는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회의 정치사회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스페인 제도의 이식

### *엔코미엔다의 이식: 정복자와 원주민 양자구도*

엔코미엔다의 설치는 스페인인과 원주민의 관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제도화에는 제도를 도입, 이식시킨 측의 이해관계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엔코미엔다는 일정 수의 원주민을 스페인인에게 할당하여<sup>7</sup> 원주민은 공물납부와 부역의 의무를 지키고, 스페인인은 원주민을 보호하고 개종시키는 후원자 역할을 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엔코미엔다 체제 아래 원주민은 명분 상 왕의 신민으로 인정받았고, 왕의 신민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질을 이제부터 습득해야 할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엔코멘테로 스페인인은 담당 원주민 지역에서 노동력 및 공물 징수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sup>8</sup>, 견제세력 없이 절대권력을 행사하였으며, 서인도제도에서 원주민을 노예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엔코미엔다 제도는 식민지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1495년 크리스토팔 콜론이 서인도제도에서 끌고 온 원주민을 노예로 팔려했을 때 이사벨 여왕은 원주민을 자신의 신민으로 규정하고, 노예판매를 왕권에 대한 침해로 여기고 금지시켰다 (Lenkersdorf 2010, 28). 그러나 원주민

7 대부분 원주민 촌락(pueblo) 단위로 한명의 스페인인 정복자 또는 식민자에게 배정되었다.

8 엔코멘테로는 원주민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원주민 토지에 대한 권리는 원주민 지배층에게 그대로 남겨두고, 사법권은 원주민 지배층의 권한에서 제외시켜 스페인인의 엔코멘테로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실 사법권은 주권자로서 스페인 왕의 고유권한이었다. 즉 엔코멘테로는 왕의 권한을 위임받는 형식으로 원주민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식민체제의 변화는 왕의 사법권을 누구에게 위임하느냐와 관련되었다(Menegus Bornemann 1991, 73-102).



에게는 신민이라는 지위와 함께 의무가 주어졌고,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엔코멘테로라는 스페인 지배자가 필요했다. 신민의 의무는 스페인인을 위한 노동력 제공과 공물 납부였으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주민 사회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시케(cacique)라 불렸던 원주민 지배층의 매개가 필요했다.

1503년 이사벨 여왕이 서인도제도의 니콜라스 데 오반도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원주민 지배층인 카시케가 스페인인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수의 원주민을 감독하여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책임을 맡도록 하여, 사실 노예제와 다름없던 엔코미엔다 제도가 시작되었고, 1512년 부르고스 법령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이 법령은 원주민을 스페인인에게 위임하고, 광산 주변으로 거주지를 옮겨 광산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서인도제도 원주민이 처한 가혹한 현실에서 기인한 급속한 원주민 인구감소는 1516년 페르난도 왕의 서거 이후 카스티야 왕국의 섭정자로 등장한 프란시스코 히메네스 데 시스네로스로 하여금 서인도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식민정책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그 결과 처음으로 원주민 자치가 식민정책의 새로운 방식으로 논의되기에 이른다(Lenkersdorf 2010, 28-30).

이러한 정세변화 속에서 1516년 산토 도밍고로 파견된 세 명의 제롬회 수도사들은 서인도 제도에서 8-24년 간 생활한 경험이 있는 스페인인을 상대로 원주민이 스페인인의 개입 없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견 수렴 결과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Lenkersdorf 2010, 31). 즉 원주민에게는 엔코멘테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덧붙여, 엔코미엔다를 금지시키면 식민화 사업에 대한 대가로 이 제도를 통해 이익을 취하던 스페인인들을 더 이상 식민지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엔코미엔다 이외 식민정책에 대한 대안이 서인도제도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고 있는 동안, 1520년 스페인에서는 카를로스 1세가 즉위하였고, 약 20년에 걸친 약탈로 원주민 노동력과 금 생산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스페인인들은 이미 그 존재가 알려져 있던 새로운 땅<sup>9)</sup> -아메리카 대륙- 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르네상스의 흐름에 몸을 맡겼던 카를로스 1세는 즉위식을 올리기도

9 1502년 콜럼버스의 네 번째 항해에서 스페인인들은 온두라스 해안을 향해하던 마야 상인과 마주쳐 서인도제도 이외의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Carmack 2014, 20-21).

전에 식민지에서 엔코미엔다를 금지시키고 원주민을 자유로운 존재로 인정하였고, 1523년 원주민은 엔코멘테로가 아니라 왕에게 복속된 신민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지만(Lenkersdorf 2010, 32), 그때까지만 하여도 이베리아 반도에서조차 그다지 강력하지 못했던 스페인 왕권이 대서양 건너 식민지에서 효력을 발휘할리 만무했다.

아메리카 본토에 도착하여 새로 정복한 땅에서 최고 권력을 누리고 있던 에르난 코르테스는 엔코미엔다 금지령에 복종하지 않고 휘하의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원주민을 할당함으로써 처음으로 식민지를 둘러싼 정복자 대 왕실이라는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다. 원주민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하여도 원주민을 통제하지 못하면 정복으로부터 얻은 땅에서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코르테스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처럼 엔코미엔다에 대한 왕실과 사제들의 반대 입장이 점차 명료해지는 가운데 1521년 아즈테카 통치자 콰우테묵의 항복으로 스페인인들의 아메리카 대륙 정복이 본격화 되었다. 대륙에서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한 군사적 정복으로 규모면에서 훨씬 더 광대하고, 다양한 지역을 식민화하는 과정이 병행되었다. 이러한 아메리카 대륙의 초기 식민과정은 서인도제도의 식민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엔코미엔다 제도를 이식하였다.

그러나 서인도제도 식민화 이십 여 년의 결과 나타난 원주민 인구의 몰살을 방지하기 위한 사제들의 저항과 점차 강력해지는 정복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왕실의 다양한 시도가 엔코미엔다 역제를 통한 정복자 세력 축소라는 목적에 따라 점차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프란시스코회 수도사들은 원주민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스페인인을 감시, 감독, 통제할 수 있는 사법권의 정립을 요구했다. 다른 한편 왕실에서는 정복자와 그들의 후손의 세력기반이었던 엔코미엔다를 축소시키기 위한 규정을 발표하고, 확장시키기 시작하였다.

엔코미엔다 제도는 첫 번째 도입된 식민체제로서 두 가지 점에서 원주민공동체의 등장과 관련된다. 먼저 서인도제도의 원주민을 말살 시킬 만큼 가혹했던 노동력 착취와 노예화를 야기 시키기는 했지만, 법률적 제도적 담론 안에서는 ‘신민으로서의 원주민’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었다는 점이다. 1500년대 초반 서인도제도 원주민에게는 실제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했던 명목상의 ‘신민’이라는 지위는 이후 원주민공동체 설립으로 수렴되는 식민체제의 변화에서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서인도제도 정복 직후 정립된 ‘미성숙한 신민’이라는 원주민 지위는 서인도 제도 보다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를 형성했던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과 대면한 후 ‘성숙한 신민’의 가능성을 잃게 만들었다. 정치적 존재로서 원주민을 인정하는 것이 원주민공동체 설립을 가능하게 했던 인식론적 요소였다.

다른 한편 엔코미엔다 제도가 필요로 했던 원주민 지배층 카시케의 존재는 정복 이전 원주민사회의 계층구조와 정치사회조직을 보존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존 원주민 사회의 보존은 원주민공동체가 도입되었을 때 스페인식 제도의 이식과 함께 원주민 정치조직이 혼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엔코미엔다 제도는 그 파괴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정복 직후 원주민 사회를 보존하여, 이후 원주민공동체라는 새로운 형태로 계승될 수 있는 중간매개 역할을 한 셈이었다.

#### *무니시피오의 이식: 스페인화를 위한 첫 번째 시도*

엔코미엔다가 스페인인과 원주민의 경제적 착취/피착취 관계를 제도화 하였다면, 스페인의 군사적 행위를 정치적으로 제도화시키는 매개는 무니시피오의 설치였다. 15세기까지 이베리아 반도의 정치적 구성은 도시들 간의 연계, 또는 각 도시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회로 대표되는 것이었다. 스페인 제국사에서 도시건설과 도시의 자치적 운영이 가지는 중요성은 800년에 걸친 국토수복 전쟁에서 발견되는데, 이슬람으로부터 되찾은 영토를 가톨릭 세력 아래 두기 위한 식민 사업이 필요하였고, 그 사업의 중심은 도시를 건설하여 주민을 영구적으로 거주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건설된 도시는 왕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고 자치권을 인정받았다. 스페인 전통 아래 도시는 단지 왕실에 종속되어 제국을 구성하는 단순한 하부단위가 아니라, 의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왕을 주권자로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도시가 누리던 자치권은 명목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시도는 도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었다. 1520년 코무네로 반란이 하나의 예로서, 반란을 주도한 도시들은 ‘도시로 구성된 왕국’이 ‘왕’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Lynch and Edward 2005, 341-353). 이처럼 국토수복전쟁에서 확인된 식민 사업에서 도시건설이 지니는 중요성과 확고하게 유지되어 온 도시 자치권 전통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계승되었다.

테노치티틀란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기도 전인 1519년, 베라크루스 해안에 도착한 에르난 코르테스는 비야 리카(Villa Rica)라 이름붙인 곳에 첫 번째 아운타미엔토(ayuntamiento)를 설치함으로써 그가 앞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하게 될 활동이 단순한 탐험이나 자원발굴이 아닌 식민 사업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서 그는 자신의 군사 활동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쿠바에 자리 잡고 있던 스페인 식민당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정복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Ochoa Campos 1968, 100). 다시 말해 코르테스는 첫 발을 디딘 곳에 도시를 건설하여, 아마도 도시라 선언된 것 이외에는 도시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그곳을 토대로 전례에 따른 도시의 권한을 주장하여, 멕시코 중앙부를 향한 군사행동을 승인받은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의 첫 번째 아운타미엔토는 정복을 위한 군사적 근거지나 스페인 본국과 소통하기 위한 연계지점과 같이 일반적으로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이나 기능 집약적 장소가 제공하는 이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명분을 얻기 위한 서류상의 의미가 더 강했던 듯 보인다. 실질적 의미에서 첫 번째 아운타미엔토는 테노치티틀란 정복 이후 1524년 멕시코시티 코요아칸에 설치된 것으로, 이로서 스페인 거주지를 형성하며 본격적인 식민화가 진행되었다.

정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아운타미엔토의 구성은 1530년대까지 스페인인만의 독점적 권리였으나, 원주민 사회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영역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스페인인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와 원주민을 스페인 정치제도에 동화시키려는 이상을 따라 원주민 지배층에게도 조금씩 권한을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530년 2대 아우디엔시아에 내려진 지침에서 처음으로 원주민도 스페인인 아운타미엔토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지는 레히도르(regidor)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1526-1532년경 원주민 지배층에게 사법권을 의미하는 ‘정의의 지팡이’(vara de justicia)가 주어졌다(González-Hermosillo 1991, 29). 이때까지만 하여도 스페인 왕실의 관심은 스페인 사회와 원주민 사회를 분리하기보다, 두 개의 사회를 근접시켜 원주민이 스페인화 되는 방식에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 요소에 의해 원주민 공동체와 스페인인 공동체를 분리하게 되면서, 원주민 공동체는 카빌도라 불리던 독자적인 아운타미엔토를 구성하게 된다.

### 코레히미엔토의 설치: 왕실, 정복자, 원주민 삼자구도

1530년 누에바 에스파냐의 2대 아우디엔시아에게 보낸 지침에서 처음으로 코레히미엔토(corregimiento)가 엔코미엔다의 대안적 통치 시스템이자 왕실이 주도하는 원주민 공물 징수 시스템으로 등장하였다(Gibson 1967, 86). 이는 원주민을 위임받아 후원하는 자(encomendero)는 정복자가 아니라 왕실 대리인이어야 함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원주민공동체 설립배경 가운데 하나인 왕실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15세기 말 가톨릭 양왕 시기부터 스페인 내부의 신생도시에 대한 왕실 권력을 증진시키고자 사법권을 가진 왕실관리를 임명하였다. 이 관리의 명칭이 코레히도르(corregidor), 즉 교정해(corregir) 주는 사람으로, 계층 간 분쟁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왕실의 권한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Ruiz Medrano 2002, 51).

1530년 7월 12일 마드리드에서 공포된 지침에서는 1대 아우디엔시아가 수여한 엔코멘테로 직위를 모두 해제하고, 원주민을 왕실 휘하에 두도록 하여, 공물을 엔코멘테로가 아닌 왕실 재정 관리에게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코레히도르라는 왕실관리를 임명하여 지역통치와 사법권을 담당하도록 하였다(Lenkersdorf 2010, 33-34). 이는 엔코멘테로의 권한이었던 공물 징수를 통한 경제권, 원주민 통제를 통한 사법권과 통치권을 모두 왕실로 회수하겠다는 의미였다.

이처럼 코레히도르는 왕실관료이자 왕의 대리인으로 엔코멘테로 대신 원주민을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초창기 코레히도르의 수입원은 원주민의 공물납부에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엔코멘테로와 깊이 결탁하거나 코레히도르 자신이 엔코멘테로인 경우조차 있어서, 엔코멘테로 견제와 왕실 사법권 회복이라는 목표에 부응하지 못했다. 비록 이들의 보수는 이들이 직접 원주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왕실로부터 지급받는다는 형식을 띠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주민이 납부하는 공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실에서 코레히도르의 보수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왕실 재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코레히도르 임명이라는 정책은 실현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코레히도르의 등장으로 원주민 사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제약을 받으리라 예상했던 수도사들도 코레히미엔토 제도가 뿌리를 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수도사가 코레히도르를

대신하여 엔코멘테로를 견제하는 지역에서는 왕실의 이해관계와 수도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코레히도르 파견을 고집하지 않았다(Lenkersdorf 2010, 34-36).

그 결과 엔코멘테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왕실의 더욱 직접적이고 신중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그러한 대안 가운데 하나는 1542년 제정된 신법령의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누에바 에스파냐로 파견된 테요 데 산도발(Tello de Sandoval)의 제안이었다. 그는 아우디엔시아가 관할하는 광대한 영토를 4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는 스페인인의 거주지로서 중심지를 건설하는 한편, 관할지역에 거주하도록 했던 코레히도르와는 달리 알칼데 마요르(alcalde mayor)로 하여금 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감독하도록 하였다. 즉 지역차원에서 원주민 카빌도가 통치기구로 존재하고, 스페인 감독관은 순회감독을 맡도록 하여 코레히도르가 상주하면서 원주민을 수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넓은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운영해야 하는 코레히도르의 규모를 줄이고자 하였다. 엔코멘테로든 코레히도르든 왕과 원주민 신민 사이에 매개로 존재하는 스페인 통치계층이 자행하는 약탈을 방지하고, 실제로 원주민 사회의 '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급 사법권과 지역통치를 원주민 내부에서 책임질 것을 제안하였다(Lenkersdorf 2010, 37-38). 원주민 자치라 부를 수 있을 이러한 제안은 식민화 초기에 시행되었던 노예제와 다른없던 엔코미엔다 제도와 견주어 비약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다시 말해 스페인 왕실은 엔코멘테로를 견제하고 왕실주도의 식민체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다음에서 살펴볼 원주민공동체의 등장도 원주민 지배층을 세습귀족에서 카빌도의 선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엔코멘테로의 영향력 아래 있던 원주민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지배층으로 교체하여 왕실 대리인으로 삼으려는 의도였다. 앞에서 언급한 1530년 전후 스페인인 무니시피오로 원주민 지배층을 흡수하려던 것도 원주민 사회에 스페인 정치제도를 이식한다는 목적 이외에, 왕의 사법권을 원주민 관료에게 위임하여 원주민 세습귀족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원주민 지배계층을 형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Menegus Bornemann 1999, 605). 비록 다음에서 살펴보듯 원주민 사회 내에서 지배계층의 변화가 단시간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왕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왕의 사법권을 지키기 위해 정책적 실험을 했던 것이다. 코레히미엔토는 시행 직후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해, 원주민공동체

설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체제가 등장하게 되지만, 지역에 따라 코레히도르는 알칼데 마요르와 함께 왕실 공물 및 세금 관리, 원주민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한 사법권 행사, 종교적 계율 준수 등 상위 행정기구로서 원주민공동체의 자치영역과 식민체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원주민 지배층의 존속

에르난 코르테스가 테노치티틀란을 점령한 후 엔코미엔다와 무니시피오 도입을 통해 스페인식 제도가 이식되는 위와 같은 과정은 원주민 사회구조의 재편을 의미했다. 일부는 도입된 스페인식 제도와 병합되거나 순응했고, 또 다른 일부는 이중구조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패배와 그에 뒤따르는 사회 전반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급진적 사회변화를 겪게 되었다.<sup>10</sup>

앞서 언급했듯이 엔코미엔다를 이식한 에르난 코르테스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원주민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원주민 지배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1522년 테노치티틀란 정복에 참여한 스페인 군사지휘관과 패배한 원주민 지배층 모두 한 자리에 소집하여 처음으로 엔코미엔다 제도를 공포할 때, 기존 아즈텍 사회가 멕시코 중앙지역 전체에서 행사하던 헤게모니와 공물징수 시스템을 이용하는 한편, 원주민지배층을 엔코멘테로에게 복속시켰다.

먼저 코르테스를 비롯한 스페인인들은 유럽의 봉건제와 장원제에 견주어 원주민의 정치사회조직을 이해했는데, 삼자동맹을 결성하여 멕시코 중앙지역을 장악했던 아즈텍 사회의 중심부인 테노치티틀란 지역을 ‘제국’으로 묘사하고, 아즈텍 사회에 공물을 바치던 외부사회를 제국에 복속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코르테스는 공물납부시스템의 최고점에 위치했던 아즈텍을 엔코멘테로로 대체하는 동시에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회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공물납부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였다(García Castro 2001, 193-194). 스페인인들은 각 사회를 ‘장원’(señorío)<sup>11</sup>이라는 유럽식 영토단위로 이해하여 공물납부를

10 전반적인 원주민 정치제도의 연속성에 관해서는 김윤경(Kim 2013b)의 연구를 참고할 것.

11 장원이라 옮길 수 있는 스페인어 세뇨리오(señorío)는 봉건사회 구성원의 눈으로 메소아메리카 사회구조를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스페인인들이 메소아메리카 문화권의 정치, 사회, 영토적 단위를 지칭하고자 사용했는데, 이는 다른 아닌 칼푸이와 알테페틀에 대한 거친 번역어였던 셈이다. 이 용어는 ‘원주민 영주’(señores naturales)라는 호칭과 함께 사용되었는데, 알테페틀의 사회적 관계를 토지 지배권을 갖는 지배층과

위한 위계적 구조를 대입시켰다.

그러나 스페인인들이 ‘장원’이라고 표현한 사회단위는 멕시코 중부 나우아 지역에서는 알테페틀, 마야 지역에서는 바탑(batab)이라 불리던 영토적 성격을 갖는 정치사회구조의 단위로, 각 단위는 다시 칼푸이(calpulli)라는 소규모 사회로 세분화되었고, 각기 다른 통치자의 지배를 받았다. 스페인인들은 이러한 원주민 사회구성을 위계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여러 칼푸이가 병렬적인 관계로 연결된 것이 알테페틀이었을 뿐 반드시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었다.

원주민 사회를 영토, 정치, 사회적으로 구성하고 있던 알테페틀은 스페인인들에게 장원으로 해석되면서 그 지배층은 봉신의 위치에 있는 ‘원주민 영주’(señores naturales)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원주민 영주’는 일정한 영토에 안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토지분배를 결정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즉 원주민 영주는 장원이라는 토지를 기반으로, 소유영토에서 얻게 되는 소출과 ‘농노’로 여겨진 마세우알레스(macchuales)를 지배함으로써 얻는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다. 이러한 원주민 지배층이 누리는 사법권과 사회통제력은 엔코미엔다를 안착시키려는 스페인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주민 지배층이 원주민 사회에 행사하는 통치권이 필요했던 것은 비단 엔코미엔다를 통해 부를 축적하려던 정복자들만이 아니었다. 정복자 세력을 견제하려던 왕실은 그들을 대신하여, 하지만 왕실에서 파견한 소수의 코레히도르가 책임질 수 없었던 원주민 사회 곳곳을 왕실을 대신하여 관할할 수 있는 대체세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식민체제가 원주민공동체의 설치로 이행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

그 토지에 예속된 피지배층으로 이해한 것이다. 비록 원주민 사회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1538년 세습형 지배층에게만 ‘원주민 영주’라는 호칭을 허용하고, 세습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지배계층은 ‘카시케’라 부르도록 했으나, 어쨌든 ‘원주민 영주’라는 용어는 메소아메리카 사회의 복잡한,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사회구조에 대한 물이해를 드러낸다.



## 원주민공동체의 설립

### 법률적 성립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6세기 초반 스페인 식민체제의 변화는 왕권 강화, 그 가운데 특히 사법권을 둘러싼 왕실과 엔코멘테로의 갈등관계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역학 외에도 원주민공동체 설립에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사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선교사들은 선교의 효율성과 원주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원주민과 스페인인의 분리정책을 제안하기 시작했으며, 원주민이 스페인인의 개입 없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었다. 수도사들의 이런 입장은 스페인인의 탐욕에서 원주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으나, 세속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종교적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스페인인의 ‘나쁜 본보기’(mal ejemplo)에서 원주민을 격리시키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영감을 받은 원주민 자치공간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바스코 데 키로가(Vasco de Quiroga)가 한 예라 할 수 있다(Mörner 1999, 27).

사법권 회복이라는 당면과제와 수도사들의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는 와중에 1544년 누에바에스파냐를 방문한 테요 데 산도발이 스페인인이 선거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원주민 스스로 카빌도를 선출하도록 하며, 이와 함께 거주지 재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침내 1549년 10월 9일 왕령에 따라 누에바 에스파냐에 원주민 카빌도의 설립이 제정되어, 매해 모든 원주민공동체는 내부에서 레히도르(regidor)를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레히도르는 공동체 내부의 ‘공공선’(bien común)을 추구하고, 하급 사법권과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알구아실(alguacil)과 종교적 기능을 담당하는 피스칼(fiscal)도 지역 전통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였다. 위 규정은 식민시대 내내 유지되어 스페인과 원주민으로 구성된 식민사회의 기본틀로 작용하였다. 물론 위 규정은 단시간에 단일화된 모델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의거하여 실현되었다. 또한 법률적으로 원주민공동체와 스페인인공동체로 분리하고, 두 개의 공동체는 각기 독립적인 구조를 유지하도록 정하였다(Jiménez Gómez 2008, 79).

그 결과 16세기 말에 이르면 원주민 ‘영주’가 장악하고 있던 장원과 이에 기반한 엔코미엔다는 카빌도가 통치 기능을 담당하는 원주민공동체와 이를 감독하는 코레히도르 또는 알칼데 마요르로 대체되었다.<sup>12</sup>

## 정치 구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엔코미엔다는 정복 이전 원주민 사회조직을 보존시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 첫 번째는 원주민 ‘영주’에게 기존의 특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원주민 사회 통제권을 그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스페인인들이 장원제라 여겼던 기존 원주민 사회의 권력관계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원주민 사회 내에서 그들이 가졌던 사법권과 토지에 대한 권리도 보존되었다.

그러나 Menegus Bornemann(1999)에 따르면, 원주민 사회 내부 권력관계는 원주민공동체의 설치와 함께 장원에서 카빌도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원주민 지배층의 구성이 혈연에 따른 세습귀족에서 선출로 구성되는 원주민 카빌도의 관료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초기에는 원주민 세습 지배층이 카빌도의 직책을 겸직하면서, 기존 원주민 지배층이 정치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통제권을 휘어잡게 된다. 그러나 점차 카빌도 관료라는 직책과 세습귀족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구분되었다. 그 결과 원주민 지배층은 세습으로 형성되는 배타적 집단이 아니라, 선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직책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회적 신분의 변동 가능성은 경제적 위치의 변동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원주민 지배층이 카빌도 선출과정에서 배타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원주민 사회 다수를 차지하던 피지배계층의 선거 참여를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출직으로 구성된 카빌도가 통치하는 원주민 공동체’를 현대적 의미로 과도하게 해석하여, 민주적인 이상형적인 정치공동체로 속단할 수는 없다.<sup>12</sup>

또한 원칙적으로 원주민공동체의 카빌도 선출은 스페인 왕의 승인을 받아야

12 그러나 지역에 따라 장원제 권력층이었던 원주민 카시케는 카빌도에 자리를 내주는 대신 ‘카시케영토’(cacicazgo)를 통해 식민시대 내내 세력을 유지하였다. Taylor(1970)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550년대 이후 카시케는 몰락했지만 오아하카 지역은 예외적으로 카시케 세력이 강하게 유지되어 세금징수를 담당하고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자기 세력의 기반이 되는 원주민 사회 속에서 살기보다 스페인인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여 도시에 거주하였고, 17-18세기에 이르러서는 보유토지에 대한 명의를 획득하여 법적 기반까지 마련하게 된다. 식민시대 말기에는 그렇게 획득한 토지의 임대료에 수입을 의지하면서, 더 이상 원주민 노동력 통제나 토지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야 지역은 멕시코 중부 지역과 달리 위원회 전통이 카빌도로 계승되어 평의회와 유사한 통치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했기에, 스페인 왕의 대리인인 스페인 관료에게 선출결과를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했다. 지역에 따라 선출결과를 보고받아야 할 관리가 부재한 경우도 적지 않았기에 명분상 관리 감독에 머무르며, 높은 수준의 원주민 자치권을 누리는 원주민공동체도 있었던 반면, 끊임없이 스페인인의 선거개입과 조작에 노출되었던 원주민공동체도 있었다.

이러한 원주민공동체의 카빌도는 스페인인 공동체의 아운타미엔토와는 행정적 면에서 다른 기능을 가져 스페인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공물의 징수와 납부 책임을 졌고, 선교사업에 조력할 의무도 있었다. 식민체제의 간접통제를 위해 위임된 이와 같은 역할 이외에 공동체 자치를 위한 기능을 담당하여, 공동경작 및 협동 작업을 위한 노동력 분배를 담당했고, 지역 시장 운영과 공공건물 및 수도, 도로, 감옥 등 공공서비스를 관할하였다. 더구나 체포와 처벌과 같은 하급수준의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고, 스페인 식민당국 또는 다른 원주민공동체와의 대외 관계에서 공동체를 대표하였으며 때로는 스페인 왕을 향한 청원을 담당하기도 하였다(Lenkersdorf 2010, 163).

이에 비해 스페인인공동체의 카빌도는 사법권 부문에서 원주민 카빌도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중범죄 및 스페인인이 개입된 사안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였으며,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카빌도 선출은 스페인식 모델에 따라 매년 이루어졌고, 실제로 선출되는 원주민 지배층이 수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원칙을 따르기는 어려웠지만, 연이은 재선은 불가하였다.

## 공간적 구성

앞에서 살펴본 식민체제의 변화는 단순히 제도와 권력관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사회의 물리적 형태, 즉 사회의 공간적 구성의 급진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콘그레가시온(congregación) 또는 레дук시온(reducción)이라 불리는 거주지 재편과정은 1503년과 1516년 지침에서 기원한다. 이스파니올라섬의 식민화 과정 중에 원주민을 문명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화된 거주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1516년경에는 스페인인의 약탈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스페인인 거주지와 원주민 거주지를 분리하고, 원주민 거주지는 300명 단위로 교회, 광장, 병원, 주거지, 도로, 공용토지로 구성한다는 계획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Mörner 1999, 23).

이러한 초기 제안은 1530년대에 들어서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스페인인의 행실이 원주민에게 모범이 되지 않으며, 산재되어 있는 원주민 거주형태를 도시화된 구획으로 옮겨두는 것이 선교 사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에 따라 점차 구체화되었다. 스페인인들과 거주지를 분리하고 스페인식 거주형태를 이식한다는 두 가지 의미에서 왕실은 1538년 처음으로 과테말라 지역 총독에게 원주민 거주지 재편을 명했으며, 1546년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에서도 사제들이 거주지 재편 필요성을 역설하여, 부왕청의 거주지 재편 계획에 힘을 실었다. 그 결과 루이스 데 벨라스코 1세(1550-1564)의 부왕 재임기간 동안 누에바 에스파냐의 초기 대규모 거주지 재편이 이루어졌고, 루이스 데 벨라스코 2세의 첫 번째 재임기간이었던 1593-1595년 다시한번 집중적인 거주지 재편이 이루어졌다(García Castro 2002, 151).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진행된 거주지 재편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다. 먼저 촌락 중심의 도심과 경작지가 분포되어 있는 외곽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넓은 지역에 걸쳐 거주지와 경작지가 혼재되어, 거주지가 드문드문 산재되어 있었던 기존 원주민 거주형태를 격자형으로 설계된 도심으로 밀집 시키고, 도심 주변에 공동체의 공동토지를 배치함으로써 본래 원주민 경작지였던 땅을 스페인인들에게 양도하기 쉬워졌다. 또한 구획화된 도시의 건설은 스페인식 관념으로 볼 때 폴리시아(policia)<sup>14</sup>라 표현되었던 가톨릭 정신과 정치력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원주민이 교회와 정부청사로 둘러싸인 광장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격자형 도시에 거주한다는 것은 선교사업과 식민사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스페인인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도 원주민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었다<sup>15</sup>.

원주민공동체의 설립은 이러한 거주지 재편과정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진행되는데, 거주지 재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거주지 재편이 산과 평원 등 원주민 우주관과 연결되어 있던 공간에서 원주민을 끌어내어 평면화되고 구획화된 스페인식 공간으로

14 현재적 용법의 경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술의 하나로 ‘선치’(un buen gobierno)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위생시설 및 도로포장 등의 사회시설 마련부터 종교 규율의 준수까지 아우르는 일상적이고 미세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통치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Fraile(1997)을 참고할 것.

15 스페인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김희순(Kim 2014)을 참고할 것.

밀어 넣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병렬적 관계였던 여러 칼푸이를 카베세라(cabecera)라 불리는 하나의 칼푸이를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칼푸이는 수혜토(sujeto)로서 도시행정 및 정치적으로 하위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거주지를 재편했다는 사실이다(Ramírez Ruiz 2006, 145). 이러한 사실은 원주민공동체란 형식적으로 식민지배의 산물로 등장한 식민체제의 일부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민정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원주민의 수용 및 적용 과정에서 새롭게 해석 및 변용되어 원주민 문화와 융합되었듯이, 거주지 재편도 표면적으로는 스페인식 도시계획의 일부였지만, 새로 건설된 원주민공동체는 원주민의 공간인식론과 그에 반영된 세계관을 계승하였다. 이에 관해, García Zambrano(1992)는 린코나다(Rinconada)라 개념화한 원주민 사회의 전형적인 공간인식이 새로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거주지에 설립된 식민시대 원주민공동체가 정복 이전 메소아메리카 원주민 세계관과 조응하며, 독립적인 사회단위로서의 응집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린코나다는 García Zambrano가 원주민이 주거지로 선호했던 일련의 지형적 공간적 특징을 모델화한 것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수원지를 의미한다.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는 천문관측을 도와 태양의 남중고도를 읽어, 연중 농경 및 종교 활동을 준비하도록 했다. 저자가 원주민의 공간인식을 해석해내어 표현한 모델에 따르면 주거지역을 표현하는 사각형은 이를 둘러싸는 산지를 표현하는 원에 내접하여, 수원지를 의미하는 하나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늘과 대지를 연결하는 형상을 지닌다. 그리고 이 중심을 지나 사각형 각 꼭짓점과 만나는 대각선은 각각 하지와 동지를 지시하며, 각 변의 중심을 지나가는 선은 사방을 가리킨다. 정복 이전 메소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러한 지형적 성격을 지닌 지역을 신화에 근거하여 주거지로 선택하고, 선택된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왔다. 그리고 마을건립을 기념하는 제의를 거듭함으로써, 이 땅은 단순한 주거지 및 경작지가 아닌 제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획득하여, 알테페틀이라는 메소아메리카 문화권의 사회정치적 단위에 상징화된 공간적 인식을 덧붙인다. 다시 말해 알테페틀은 평면적 도면으로 그려낼 수 있는 지리적 구획이 아니라 제례적 신성함이 덧입혀진 3차원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형 속에 정렬되지 않은 형태로 산재되어 있던 원주민 주거 형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페인인이 지향했던 구획화된

도시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코나다로 표현된 공간인식은 스페인식 거주지 재편에도 흔적을 남긴다. Ramírez Ruiz(2006)에 따르면, 거주지 재편과정에서 새로운 원주민공동체가 자리를 잡을 때 린코나다 형태의 공간이 선택되었으며, 산과 인접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하늘을 나타내는 산지와 인접성이 중요했으며, 일부의 경우 구(舊) 거주지를 둘러싸고 있던 산자락에 새로운 터를 마련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구 거주지와와의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정복 이전 구 거주지 인근에 다시 만들어진 마을에는 오늘날까지 뒷산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이야기들이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원주민공동체가 식민체제의 일부로서 단순한 행정자치기구로서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원주민 사회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했음을 보여준다.

## 토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치단위로서 원주민공동체는 물리적으로 스페인인과 분리된 거주지를 형성하고, 내부 선출을 통해 카빌도를 구성하여 자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자치권을 뒷받침해 준 물질 조건은 원주민공동체의 자급자족경제와 사회적 협동을 가능하게 했던 공동토지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원주민공동체의 공동 토지 개념은 스페인 정복 이전의 토지이용전통과도 맞닿는 부분이다.

스페인 정복 이전 원주민 사회의 토지는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자산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토지는 혈연집단 또는 소규모 사회단위에게 교대로 사용권이 주어지거나 공동토지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Miranda(1972, 24)는 멕시코 중앙지역과 남부지역을 구분하여 토지소유방식을 설명하였다. 중앙지역에서 발전해온 메히카, 타라스카, 틀락스칼라 문화권에서 토지소유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었다. 첫째는 공동토지를 경계가 뚜렷한 개별 경작지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 둘째,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특권층의 사유 토지, 셋째는 공공기관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경작하는 토지였다.

이와 달리 멕시코 남부 마야 문화권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졌는데, 하나는 중부지역과 유사하게 공동토지를 개별 경작지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중부지역과 차이점은 개별 경작지

간의 경계가 모호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거의 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된 특권층의 사유토지였다.

즉 토지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측면에서 공동토지였으며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토지는 정해진 소유자에 의해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에게 사용권이 주어지는 것 뿐이었다. 멕시코 중앙지역에는 일부 지배층이나 특정 가족에게만 배분되어 거래되는 특권층의 사유토지가 있었으나(Lockhart 1999, 222), 이 경우에도 개인적인 판매와 구입이 아니라, 공적으로 재배정되는 형식을 띄고 있었다. 따라서 토지는 지배층의 독점적 권력을 위한 기반이라기보다는 사회구성원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자급자족적 기능과 사회를 유지시키는 다양한 활동무대의 의미로 더 중요했다.

이러한 공동 토지는 스페인의 정치사회적 제도가 이식된 후 거주지 재편을 통해 원주민공동체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보호의 대상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거주지 재편으로 남겨진 토지가 스페인 식민자의 수중으로 쉽게 넘어갔고, 원주민공동체는 늘 현지 스페인 식민자들의 탐욕에 위협을 받았지만, 왕실에서는 식민화 사업 초기부터 다양한 법제화를 통해 원주민 공동 토지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다양한 교단의 수도사들이 이러한 왕실의 의지를 현지에서 실행함으로써 원주민공동체 토지의 막무가내식 약탈은 막을 수 있었다. 사실 식민시대 내내 토지보호법을 반복적으로 공포한 것은 그만큼 토지약탈이 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와 속도를 어느 정도 제어하는데 성공한 것도 사실이다.

원주민공동체의 설치와 함께 공동토지 뿐 만 아니라 토지소유방식도 계승되어, 원주민 특권층이 누리던 사적 토지이용권과 공동토지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 모두 인정되었다. 그 결과 거주지 재편이라는 상당히 폭력적인 과정을 통해 설치되던 원주민공동체에 대한 반발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원주민공동체의 공동토지는 에히도(ejido)와 폰도 레갈(fundo legal) 두 가지로, 폰도 레갈은 주거지, 시장, 학교, 교회 등 공공건물 건축을 위해 마련된 토지였다. 폰도 레갈이라는 이름은 후에 붙여진 것이지만, 1567년 법적으로 원주민공동체에 보장되었다. 이곳에서는 가축방목과 경작이 금지되고, 가구별로 배정되었다. 잇달아 1573년 가축방목용으로 에히도가 지정되었다. 이 두 가지 공동토지로 각 가정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나,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는 없고 세습만 가능했다. 따라서 가계가 끊기는 경우 판매하는 대신 공동체

내의 다른 가정에게 재배정 되었다(Park 2014, 120-123). 이와 같은 공동토지의 존재는 원주민공동체를 단일한 경제단위로 묶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토지운영 및 공동경작을 통해 사회적 결속을 공고히 하는데도 기여하였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체제의 변화는 원주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와 함께 원주민을 통제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해집단들 -왕실, 정복자, 사제, 왕실관리, 식민지 이주자- 사이의 세력다툼을 반영한다. 식민체제의 목적은 원주민 노동력과 식민지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지만, 군사적 정복 이후 수 십 년에 걸쳐 일어난 식민체제 변화는 식민지의 효율적 관리와 수탈이라는 1차적 목적 뿐 만이 아니라, 그렇게 관리되고 수탈된 자원을 식민통치계층 내부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원주민 공동체의 성립은 두 가지 과정의 결과였다. 하나는 정복자 및 그들후손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식민지에 대한 왕권, 더 정확하게는 왕실의 사법권을 강화시키려는 시도였고, 다른 하나는 기존 원주민 정치사회 조직을 보존하는 동시에 파편화하여 스페인인의 이해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엔코미엔다-코레히미엔토-원주민공동체라는 축을 따라 초기 식민체제의 변화양상을 설명했으나, 위 세 가지 제도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다음 세대의 새로운 제도로 교체되면서 각각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공존하며, 스페인인들의 이해관계에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엔코미엔다는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1720년에 이르러서야 폐지되었고, 코레히미엔토 역시 하급 사법권을 포함한 지방통치 기능 일체를 원주민공동체의 카빌도로 이전시킨 후 원주민 공동체의 상부 행정기관으로 원주민-스페인 이중 공동체 구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았다.

여러 식민제도가 공존했고, 거의 300년에 이르는 시간동안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노출되었지만, 원주민공동체는 식민체제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로서 존재했다. 그리고 19세기 초 독립 이후 원주민공동체의 사회정치적 구성은 근대국가의 기본정치단위인 무니시피오로 자기변형을 계속한다. 그러나 이미



17세기 초반부터 원주민공동체의 설립원칙이었던 스페인인과 원주민의 거주지 구분은 많은 지역에서 유명무실해졌고, 18세기 이후 일부 원주민 지배층은 원주민공동체의 자치기구라기 보다 스페인 식민통치의 대행자 역할을 하거나, 공동토지를 사유화하여 지역 유지로 폭정을 일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스페인 식민체제 내에서 허용된 원주민공동체가 낭만적 정치공간으로 온전히 보존된 것이 아니라 내외부적 권력관계에 따라 요동치는 정치의 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스페인 정복 이전부터 현재까지 ‘원주민’이란 범주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원주민공동체를 분석단위로 제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Carmack, Robert M. et al.(2014), *The Legacy of Mesoamerica: History and Culture of a Native American Civilization*, Jung-Won Kang(trans.), Seoul: Greenbee.
- Choi, Jin-Sook(2009), “The Emergence of the Discourse of ‘Indigenous Peoples’ and the Reified Concept of ‘Culture’: A Case of Guatemala,” *Revista Iberoamericana*, Vol. 20, No. 1, pp. 209-231.
- Fraile, Pedro(1997), *La otra ciudad del rey. Ciencia de policía y organización urbana en España*, Madrid: Celeste Ediciones.
- García Castro, René(2001), “De señoríos a pueblos de indios. La transición en la región otomiana de Toluca (1521-1550),” in Francisco González-Hermosillo(ed.), *Gobierno Y Economía en los pueblos indios del México colonial*, México: INAH, pp. 193-211.
- (2002), “Los pueblos de indios,” in Bernardo García Martínez(ed.), *Gran Historia de México Ilustrada, Nueva España, 1521-1750 I*, México: Planeta de Agostini, pp. 141-160.
- García Zambrano, Angel Julián(1992), “El poblamiento de México en la época del contacto,” *Mesoamérica*, Vol. 24, pp. 239-96.
- Gibson, Charles(1967), *Los aztecas bajo el dominio español 1519-1810*, México: Siglo XXI.
- González-Hermosillo, Francisco(1991), “Indios en cabildo: historia de una historiografía sobre la Nueva España,” *Historias*, Vol. 26, pp. 25-63.
- Jiménez Gómez, Juan Ricardo(2008), *La república de indios en Querétaro, 1550-1820. Gobierno, elecciones y bienes de comunidad*, México: Universidad Autónoma de Querétaro.
- Joo, Jong-Taick(2005), “Indigenous Policy in Mexico and Ethnicity: Relationship between Mestizo and Indígena,” *Th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8, No. 4, pp. 237-270.
- Kim, Heesoon(2014), “The Role of Cities during the Period of Spain’s Colonial Empire Formation-Focused on the Viceroyalty of New Spain in the 16<sup>th</sup> Century,” *Korea Journal of Urban Geography*, Vol. 17, No. 1, pp. 139-156.
- Kim, Ki-Hyun(2005), “Human Rights of Latinamerican Indigenous Peoples: Toward Cultural Diversity,” *Th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8, No. 3, pp. 85-119.
- Kim, Yoonkyung(2013a), “The Indigenous Movement for Autonomy in Mexico -Focused on the Zapatista Movement-,” *Revista Iberoamericana*, Vol. 24, No. 1, pp. 133-171.
- (2013b), “The Political Colonization of Aztec Empire during the 16th Century: Change or Continuity?,” *Revista Iberoamericana*, Vol. 24, No. 3, pp. 1-33.
- Lenkersdorf, Gudrun(2010), *Repúblicas de indios. Pueblos mayas en Chiapas, siglo XVI*,

- México: Plaza y Valdés.
- Lynch, John and John Edwards(2005), *Historia de España. Edad moderna. El Auge del Imperio, 1474-1598*, Vol. 4, Barcelona: Crítica.
- Menegus Bornemann, Margarita(1991), *Del señorío a la república de indios: El caso de Toluca, 1500-1600*, Madrid: Ministerio de Agricultura, Pesca y Alimentación, Secretaría General Técnica.
- \_\_\_\_\_(1999), “El gobierno de los indios en la Nueva España, siglo XVI. señores o cabildo,” *Revista de Indias*, Vol. 69, No. 217, pp. 599-617.
- Miranda, José(1972), *Vida colonial y albores de la Independencia*, México: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 Moon, Nam-Kwon(2004), “A Historical Change in Mexican Indigenous Policy Analyzed throughout Land System -Focused on Ejido-,” *International Area Study*, Vol. 8, No. 2, pp. 39-68.
- Mörner, Magnus(1999), *La corona española y los foráneos en los pueblos de indios de América*, Madrid: Ediciones de Cultura Hispánica.
- Ochoa Campos, Moisés(1968), *La reforma municipal*, México: Editorial Porrúa.
- Park, Soo-Kyoung(2014), “El Entramado de la soberanía nacional y la autonomía indígena. Tres momentos en la historia de los pueblos de indios en México, 1549, 1812 y 1857,” Tesis doctoral, México: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
- Pérez Zevallos, Juan Manuel(1984), “El gobierno indígena colonial en Xochimilco (Siglo XVI),” *Historia Mexicana*, Vol. 33, No. 4, pp. 445-462.
- Ramírez Ruiz, Marcelo(2006), “Territorialidad, pintura y paisaje del pueblo de indios,” in Federico Fernández Christlieb and Ángel Julián García Zambrano(eds.), *Territorialidad y paisaje en el altépetl del Siglo XVI*,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pp. 168-227.
- Ruiz Medrano, Ethelia(2002), “Las primeras instituciones del poder colonial,” in Bernardo García Martínez(ed.), *Gran Historia de México Ilustrada, Nueva España, 1521-1750 I*, México: Planeta de Agostini, pp. 41-60.
- Taylor, William B.(1970), “Cacicazgos coloniales en el valle de Oaxaca,” *Historia Mexicana*, Vol. 20, No. 1, pp. 1-41.

Article Received: 2014. 10. 05

Revised: 2014. 11. 13

Accepted: 2014. 11. 14